

다산포럼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진단과 전망이 쏟아지는 시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여러 기회를 통해 “내년은 구조 개혁과 경제 활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조 개혁을 강조한 데는 경제부총리 취임 후 41조 원에 달하는 전례없이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한몫하고 있다. ‘한국판 아베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최근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부쩍 많아진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금융과 노동,

개혁 아닌 최경환식 노동시장 개혁

교육 부문을 강조했다. 이 세 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 취약성이 누누이 지적되었으나 별다른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분야다.

그 가운데 이번에 노동시장개혁이 예고됨으로써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부총리의 언급을 통해 현재까지 나타난 개혁 방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요약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데서 찾고 있다.

따라서 1순위 정책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추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는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대통령도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간에도 벌써 찬반이 거칠게 엇갈리고 있다.

모든 사회, 경제적 개혁은 그것이 성공

하려면 명분과 논리적 근거,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지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지난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회원국 평균치에 모자란다. 그것도 34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로 조사되었다.

정규직의 고용불안 정도도 매우 높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게 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 대체로 평행선을 그리며 안정화되어 있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비중은 그 이후 급격히 기업소득으로 커졌고, 지금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급증하여 경제부총리조차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

지난 5년간 기업소득의 증가율은 19%를 넘지만, 같은 기간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간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일관되게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노사간의 불균형한 생산성-소득 분배를 기본축으로 하고, 그 위에 비정규

직 노동자의 저보호, 저임금 문제가 서 있는 것이다. 즉, 정규직 과보호보다는 비정규직 저보호가 문제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론이 노사 관계를 노-노 갈등 문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노동시장 개혁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커진다. 즉, 임금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확대를 그대로 둔 채 정규직의 보호를 낮추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좁힌다고 해서 내부진과 경제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이번에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최 부총리가 취임시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확대’와 잘 어울리지 않고 있다.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확대’를 현재 세계 경제의 정책적 틀과 구별하는 모든 국제적 연구들은 생산성에 맞는 임금인상,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과 적극적 취업알선 등), 영세지역업자의 경영 안정,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유지 등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의 조건을 비정규직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社說

광주시, 치솟는 전세·매매가 대책 서둘러야

올 하반기 들어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모두 하루 다르게 오르고 있어 한파 속 무주택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낮아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부족해에도 가격은 오르고 있고, 상승 속도 또한 가파르다니 광주만의 이상·왜곡현상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전세가을(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은 지난 10월 무려 78.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남구의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또한 지난 10월까지 매매가가 2.51% 오르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으로 주택 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소득 대비 주택가와 전세가 비율도 높다고 한다.

여기에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5165가구로, 올해의 9411가구보다 45.1%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다. 가뜩이나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입주물량 감소까지 겹쳐 매매나 전세난이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지역민의 소득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짚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민의 순수한 매입 수요 외에 외지인들의 물자 투자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이 모든 아파트의 가격 상승시대로 번지면서 서민들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이 가능한 광주지역 거주기한을 6개월 이상 늘리는 등의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시공사와 LH(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소규모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택지개발과 대규모 임대 물량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민간에도 도심 재개발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유도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줘야 할 것이다.

사고 위험 화물차 불법주차 당국은 뭘 하나

광주 도심 도로가 밤이면 화물차에 점령 당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운행하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 2량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북구 중흥동 A주유소 앞길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화물차의 밤샘 주차가 여전하다고 한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제2순환도로 입구도 상행은 마천까지다. 매일 밤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이 주차해 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에는 광주시 관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던 1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가 타고 부시는 아름다운 정춘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한부분인 동아리의 본질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둘러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체험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대학생활을 즐기길 바란다. 우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들이기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단속과 차고지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단속 강화, 대책 마련이니 부산을 뿔다가 잠잠해지면 뒷전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변명만 내놓고 있다.

‘무늬만’ 차고지도 화를 키우는 요인이다. 1.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화물차기 이용이 불가능한 농지에 명의를만 등록해 놓고 있다. 물론 화물차와 버스 등이 주차해 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는 불법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야 하며 차고지 증명 확인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화물차 불법 주차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지자체와 함께 공영 차고지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촌 특·특



정 예 지 광주대 신방과 3학년

대학생활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캠퍼스의 낭만, 성인으로서의 자유로움, 선후배와의 추억 등이 떠올를 것이다. 이 중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으며, 대학생 할 중 로망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일 것이다. 오죽하면 매년 영화에서 대학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동아리 오프나 후배이겠는가? 지난 2012년 개봉해 전국에 첫사랑 열풍을 불게 했던 ‘간혹학개론’에서도 여주인공인 수지의 동아리 오프로 유연석이 나온다. 이처럼 동아리활동은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동아리란 어떤 것일까? 단지 같은 뜻이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일

‘대학 동아리’ 본질을 잃지 말자

까? 이것으로는 동아리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규모 인원들로 구성된 동아리는 선후배들이 끈끈한 정으로 뭉쳐 각 동아리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해나가는 동시에 솔미동아리 엔티 등 소스트레스를 풀고 연애,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즉 다양한 체험을 즐기면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며 선후배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동아리활동은 대부분이 취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음악이나 운동 등과 같은 취미동아리는 줄어들고 취업과 잡업을 위한 동아리가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학생들 역시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학원이나 취업동아리 등을 전전하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에 자신의 특기와 적성,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활동을 하던 학생들마저도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뉴스 등 미디어매체에서 떠돌아다니는 취업난에 너나 할 것 없이 취미동아리를 떠나 속속 취업동아리로 물러나

추세다. 가장 인기 있는 취업동아리는 회원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신입사원 선발절차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서울의 어느 대학에 음악동아리 학생의 인터뷰가 나왔다. 예전에는 신입생이 많이 몰려 테스트를 해서 선발했지만, 요즘에는 동아리 임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없어 격정이라고- 물론 취업이나 잡업을 위한 동아리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취업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했었다는 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너무 취업에만 편중되어 대학에서의 학업에 지치거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마저 취업에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해 취업준비에만 열중한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중학교 교육과정도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입시도 수시 선발인원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학업성적과 수상경력 등의 스펙보다는 잠재력이나 소질, 적성 등의 스토리 관리가 중요해 졌다고 한다.

기업들도 바라는 인력상으로 도전정신, 주인인식, 창의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학생들은 학과성적, 어학능력, 수상경력 등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

오로지 성공적인 취업만을 바라보고 살 게 없이 달려가며 과도한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여,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꼭 아파야만 청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인 즉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춘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한부분인 동아리의 본질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둘러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체험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대학생활을 즐기길 바란다. 우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춘들이기에!

기고



최 봉 훈 애플B유치원 원장

지난달 26일 각계각층에서 CEO로 활동 중인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2기 회원들과 캄보디아로 향했다. 5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씨엠립 공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동남아시아 특유의 습하고 더운 공기가 캄보디아에 도착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28일 봉사지역인 캄퐁스푼에 출발을 했다. 오랜 이동과 더운 날씨에 몸은 지쳐 있었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주

캄퐁스푼에 퍼지는 ‘사랑의 촛불’

민들과 친진난만한 아이들의 진심어린 환영을 보면서 피로가 가셨다. 율동식 수석부회장의 전두지휘로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봉사에 참여한 우리자신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고 절로 신이 났다.

적박한 나라에서 자라느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이지만 해맑게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우리아이들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물질적, 환경적으로 풍족하여 부족한 점이 없는 대신 작은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같은 물건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보면서 유치원 원장으로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탈무드는 ‘한 개의 촛불로써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캄퐁스

푼의 주된, 학생들에게 붙여놓은 작은 촛불하나하나가 퍼져나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와 함께했던 추억을 생각 하며 또 다른 곳에 그들만의 촛불 릴레이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커다란 햇불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외국으로부터 받았던 나눔으로 희망의 촛불을 붙인 것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고, 5분만 서 있어도 등과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약조건이었지만,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들과 하나 되어 웃음과 행복 가득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봉사를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에는 캄퐁스푼의 맑은 하늘 아래서 펼쳐졌던 신명나는 놀이마당이 눈에 선하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벌써 그리워지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

이 아닐 것이리라. 고생은 했지만 즐거웠다. 한명 한명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함께 기억 할 수 있어 영광이다.

까맣게 탄 내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며 ‘캄보디아에서 얻은 값지고 영광스런 흔적’이라 생각한다. 봉사라는 것은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는 편견을 깨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해외봉사도 뜻 깊었지만, 이 겨울바람보다 더 시원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주위에 너무 많다.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을 걱정해야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은 겨울나기가 혹독하지만 하다. 이번 봉사를 참다운 행복으로 삼아, 주위를 살펴보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아이들에게도 어려울 때부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사랑으로 퍼지는 교육을 시행 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 학교폭력 근절에 힘써야

최근 연이어 매스컴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 예전에는 신학기가 되면 담임선생님은 가정방문을 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부모와 상담으로 학생 개인별 적성을 비롯해 환경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학교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담임교사, 학부모와 연락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가정방문 대신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해 학부모와 교사 간 대면하면서 상담하는 풍토가 사라졌다. 또한 초등학생이 되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나쁜 장비로 변하고 만다. 스마트폰에서 전송

되는 각종 내용(일명 카톡)은 파급효과를 뿐 아니라 온갖 잡다한 내용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전송해 피해학생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하기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어느 심리학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어른이 되더라도 심리적 불안감은 지속되며, 피해 당사자 자녀에게까지 폭력은 되물림된다고 하니 학교폭력 후유증은 오만한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한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보자. 피해학생은 학교전담 경찰관, 담

임교사, 학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숨김없이 알려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선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하면 엄청난 고통과 불편이 뒤따르듯이 학교폭력도 고통을 입는 학생들의 불편과 고통도 똑같은 것이다. 손톱 밑 가시는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것처럼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 등 4대 사회악을 척결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지 바란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앙림로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